

조해일의 연작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상상력 고찰

— 「무쇠탈」, 「임궏정」, 「통일절 소묘」 연작을 중심으로

오 태 호*

요약

이 글은 '1970년대 대표 작가'로 회자되는 조해일의 연작소설이 1970-80년대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작소설은 작가가 하나의 단편으로 세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연작의 형태로 자신의 의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결합시켜 놓은 소설"로서 '분절성과 계기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조해일의 연작소설은 주로 1970-80년대에 창작되면서,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과 억압이 야기한 불합리와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그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쇠탈」 연작 3편은 무장 강도의 등장을 통해 왜곡된 폭력과 타락한 총동이 만연한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다. 「임궏정」 연작 7편에서는 억압받는 민중의 핍박을 넘어서는 저항적 행동으로 '백성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작동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1970-80년대 독재정권의 폭압 통치를 알레고리적으로 풍자한다. 「통일절 소묘」 연작 2편은 '학살과 전쟁과 폭력의 분단 현실'을 현재로부터 유리하여 '상상의 통일절'을 매개로 과거로 박제화함으로써 '이상적 유토피아로서의 한반도의 평화로운 풍경'을 견인하려는 작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연작소설을 통해 도시적 일상에서 포착되는 불합리한 폭력의 문제, 역사 소설의 현재적 전용을 통한 작은 이야기 덧붙이기, 분단 극복과 통일 시대의 상상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등을 거치면서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알레고리를 배면에 깔고 1970~80년대적 저항의 수사를 형상화한다. 조해일의 연작소설은 1970년대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폭력적 현실과 이상적 대안을 모색하며 모순에 찬 현실 세계를 성찰하게 한다.

주제어: 조해일, 연작소설, 「무쇠탈」, 「임꺽정」, 「통일절 소묘」, 알레고리적 상상력, 폭력과 저항, 억압과 자유, 역사소설, 미래소설

목차

1. 서론
2. 무장 강도 이야기를 통한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에 대한 우회적 비판 - 「무쇠탈」 연작의 경우
3. '임꺽정의 에피소드 덧붙이기'를 통한 1970~80년대 정치 현실 풍자 - 「임꺽정」 연작의 경우
4. 분단 시대의 적대적 공존 넘어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상 - 「통일절 소묘」 연작의 경우
5. 결론

1. 서론

이 글은 1970년대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 조해일의 작품 중 1970~8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창작한 연작소설이 함축하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작가에 대한 기존 논의 중 일부가 「뽕」 등의 단편소설을 통해 1970년대 도시민의 자의식을 드러냈고 중편소설 「아메리카」를 통해 반미 의식의 형상화라는 사회 비판적 의식을 주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장편소설 『겨울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적 관능과 상업적 전략의 성공을 거둔 '1970년대 대중소설'이나 '절제된 문체와 개성적 서사'의 관점에서 '통속적 작가'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조해일은 『중앙일보』 신춘문에 등단작인 「매일 죽는 사람」(1970)을 발표한 이래로 1970~80년대 대표 작가로 활약하며 말년작인 「통일질 소묘2」(2017)에 이르기까지 당대 한국 사회가 펼쳐 보이는 ‘삶과 죽음, 폭력과 비폭력, 욕망과 사랑,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인간과 비인간, 이성과 충동, 이상과 현실’ 등의 양극을 누비며 인간의 실존적 가치에 대해 탐색한다. 특히 작가는 ‘역설(逆說)의 감각’과 ‘알레고리적 상상력’으로 세계를 조망한다. ‘역설’이 세계의 복잡성과 다성성을 입체적으로 착목하는 방법이고, ‘알레고리’가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적 선택으로서 ‘돌려 말하기’라는 대표적인 메타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표면적 양상이 감추어둔 이면적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한 작가적 선택이 ‘역설과 우의(寓意)’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연작소설은 작가가 하나의 단편으로 세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연작의 형태로 자신의 의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결합시켜 놓은 소설”¹⁾로서 ‘분절성과 계기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조해일의 연작 소설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절창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에 비견될 정도로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음화(陰畵)를 드러내는 조명탄에 해당한다. 「무쇠탈」(1973, 1977, 1985) 연작에서는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을 풍자하는 ‘가면 쓴 존재’를 통해 무자비한 폭력의 극악무도함, 전도된 욕망의 양상, 일상화된 타살 충동 등을 드러낸다. 7편으로 마무리된 「임격정」(1973~1986) 연작에서는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격정』(1928~1940)에 대한 헌사로서 왕조 권력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민중적 상상력을 통해 1970~80년대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 담론을 피력하며 한국 사회 현실을 풍자한다. 「

1) 권영민, 「연작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출판사, 1983, 78-87면.

통일절 소묘」(1971, 2017) 연작에서는 해방과 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단 시대를 살아온 작가가 평화적 통일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며 그려낸 ‘통일절의 낭만적 풍경’을 이상적으로 조망한다.

문학사적 차원에서 조해일은 중편소설 「아메리카」(1972)로 미군기지촌 풍경을 묘사하면서 제3세계적 시각과 반제국주의적 의식의 형상화를 성취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편소설 『겨울 여자』 등은 197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로서 상업주의적 코드 속에 과편화된 개인주의와 관능적 분위기 등의 대중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²⁾ 또한 「뿔」의 지계꾼, 「1998년」의 우화적인 미래 공간 등에서 드러나듯 새로운 소설적 기법과 비유적 장치, 주제의식을 통해 함축적이고 다양한 세계를 주조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³⁾

조해일의 문학세계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황석영이나 조세희, 최인호 등의 다른 1970년대 작가들에 비할 때 소략한 편이다. 당대 비평으로는 ‘지식인의 소명 의식, 문체의 수사학적 의미, 호모 파베르의 고통’을 분석한 김병익의 평론⁴⁾과 ‘윤리적 인간과 인간 소외, 개인의식의 극복’ 양상을 검토한 오생근의 비평⁵⁾이 주목되며, 작품 해설로는 ‘새로운 기법적 소설의 자유로운 양식화(권영민)⁶⁾’, ‘임격정 이야기의 변용이 지닌 서사적 힘(김현)⁷⁾’, ‘현실과 비현실의 알레고리(홍정선)⁸⁾’, ‘연애 풍속도의 내면과 심

2)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439-448면.

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277면.

4) 김병익, 「수해국 지식인의 자기인식-조해일의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2년 가을. / 「과거의 언어와 미래의 언어」, 『문학과지성』, 1973년 가을. / 「호모 파베르의 고통」, 『아메리카』, 책세상, 1974(2007), 319-332면.

5) 오생근, 「개인의식의 극복」, 『문학과지성』, 1974년 여름.

6) 권영민, 「내용과 수법의 다양성」, 『제3세대 한국문학 16-조해일』, 삼성출판사, 1983, 435-442면.

7) 김현, 「덧붙이기와 바꾸기-임격정 이야기의 변용」, 『임격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 139-152면.

8) 홍정선, 「현실로서의 비현실」, 『무쇠탈』, 숲, 1991, 375-387면.

연(진형준)⁹⁾, ‘비극적 아이러니와 우화적 상상력(신철하)’¹⁰⁾, ‘1970년대 현실의 발견과 압축(서영인)’¹¹⁾ 등이 주목되고, 학술논문으로는 ‘신문연재소설, 베스트셀러, 대중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970년대 문학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진행¹²⁾되다가 2000년대 이후 개별 작품론과 작가론, 주제론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¹³⁾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대한 연구의 중심 카테고리는 여전히 ‘여성성과 남성성, 폭력성과 연애 담론’ 등이 자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70~80년대 군부독재시대에 대한 ‘알레고리적 상상력’¹⁴⁾을

-
- 9) 진형준, 「연애의 풍속도」, 『왕십리』, 숲, 1993, 361~371면.
- 10) 신철하, 「한 현실주의자의 상상세계」, 『슬래야 슬래야/아메리카』, 동아출판사, 1995, 596~610면.
- 11) 서영인, 「1970년대의 서울, 현실의 발견과 압축」, 『아메리카』, 책세상, 2007, 333~340면.
- 12)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심미애,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감정구조 연구-1970년대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13) 광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3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147~164면. / 김원규,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55~95면. / 오태호,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우리어문학회, 2010. 5. 30, 601~628면. / 박수현, 「조해일의 단편소설 연구-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포함하여」, 『현대소설연구』 5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7, 145~178면. / 김병덕, 「폭압적 정치상황과 소설적 응전의 양상-조해일론」, 『비평문학』 제4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9. 30, 73~98면. / 고인환·오태호, 「조해일의 『아메리카』에 나타난 ‘미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6권, 우리문학회, 2015. 195~228면. / 김지윤, 「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19집, 구보학회, 2018. 9, 415~457면. /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50권, 반교어문학회, 2018. 12, 247~274면. / 오자은, 「『겨울여자』에 나타난 초성장의 서사와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4, 253~287면. / 김지영, 「도착적 법(法)의 판타지-연애 담론으로 본 조해일의 『겨울여자』」, 『한국학논집』 9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3, 233~272면.
- 14) ‘알레고리’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가리키면서 ‘다르게 말하기’의 효과를 일으킨다.(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위음, 황중연 옮김, 『Allegory(알레고리, 우의)』,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65~66면) 조해일 소설에서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란 1970~80년대 폭압적 정치 체제에 대해 직접 발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회

보여주는 작가의 연작소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정치적 상부구조로 하면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성장주의’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통해 냉전적 분단 상태를 전제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밀어붙이던 시기에 해당한다.¹⁵⁾ 그리고 1980년대는 광주항쟁을 폭력으로 짓밟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유신 체제의 연장으로 제5공화국을 내세우며 민족민주세력과 민중을 탄압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 통폐합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압과 부정부패를 자행한 시기에 해당한다.¹⁶⁾ 1974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위해 창립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에 간사로 참여했던 작가는 저항적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며, 대표적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연작소설이 그 텍스트들에 해당한다.¹⁷⁾

작가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와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라는 시대적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폭력적 지배와 저항적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를 통해 1970~80년대가 정치적 억압과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

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비틀어 풍자하기 위한 방법적 상상력을 의미한다.

15)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현 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5~41면.

16) 역사학연구소, 「제10절 광주민중항쟁과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고양」, 『바로 보는 우리 역사』, 서해문집, 2004, 460~477면.

17)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1974년 11월 18일 고은이 대표 간사로 총책임을 맡고 이문구, 염무웅, 박태순 등이 주도해 ‘문학인 101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통해 결성이 공식화된다. 신경림, 염무웅, 황석영, 조혜일, 박태순이 간사를 맡았으며 고문으로 김광섭, 이현구, 이희승, 김정환, 박두진 등을 추대한다. 문인들은 개별적 저항의 한계를 절감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저항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체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 ‘문학인 101인 선언문’의 내용은 부정부패와 왜곡된 근대화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김지하를 비롯한 구속 인사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사상의 자유 보장, 서민 대중 생존권 보장 및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자유 민주주의에 따른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1987년 9월 17일 민족문학작가회의로 확대 개편되면서 해산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2, 돌베개, 2009.)

주, 해방과 통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기임을 주목한다. 특히 동시대 한국 사회의 폭력적 현실을 주목한 「무쇠탈」 연작, 1920~30년대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궏정』에 대한 ‘대화적 말걸기’로서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보여준 「임궏정」 연작, 1970년대와 2010년대에 그려보는 미래소설로서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희구하는 ‘통일질’을 상상하는 「통일질 소묘」 연작 등은 작가가 1970년대 이래로 탐색해온 ‘동시대의 폭력과 저항, 불의와 정의, 독재와 민주, 불평등과 자유,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의 대비 속에 후자의 선취를 향한 가능성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판단된다.

2. 무장 강도 이야기를 통한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에 대한 우회적 비판 - 「무쇠탈」 연작의 경우

조해일의 시선은 1970~80년대 한국 사회를 물리적 폭력이 지배했던 시대로 읽어낸다. 그 중에서 「무쇠탈」 연작은 산업화 시대 이래로의 도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펼쳐지는 위해적 폭력과 타락한 욕망의 단초를 포착한다. 그리하여 강도의 무자비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시민 가정의 파괴, 강도의 폭력적 의도를 전도(顛倒)시킨 중산층 시민의 강력한 섹슈얼리티, 무도덕 상태의 아노미 상황을 전복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타살 충동 등이 그려진다. 19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 발표된 「무쇠탈 1」(1973)과 「무쇠탈 2」(1977)는 강도의 행각을 통해 폭력적 유신 권력의 억압을 알레고리화한 작품들이고, 「무쇠탈 3」(1985)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폭력 통치가 지닌 편재적 탄압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1) 1970년대적 폭력의 잔인성 형상화

먼저 「무쇠탈 1」(1973)은 결혼 3개월된 신혼부부 윤충모와 차희숙에게 닥쳐온 ‘끔찍한 재앙과 불행한 파멸’의 하루를 그린 작품이다. 신혼살림집으로 마련한 작고 웅색한 아파트에서 ‘즐겁고 흡족한 기분’으로 생활을 하던 부부는 남편의 봉급날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교사인 아내 차희숙이 먼저 귀가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작스레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강도가 무단으로 침입한다. “우리는 신사들”이라며 칼과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물방울무늬의 넥타이’, ‘네모턱의 사내’, ‘무테안경의 사내’ 등 익명의 3인 강도가 들어온 것이다.

차희숙은 암만해도 자기가 영특한 동물은 못 된다고 생각하였다. 영특한 동물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든 사태를 모면해낼 뾰족한 피라도 궁리해 냄직하지만 그런 뾰족한 피는커녕 자기는 지금 사태를 분별해낼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 채 그저 두렵고 떨리기만 하며, 그들은 야수(野獸)이고 자기는 그 앞에 발가벗고 선 한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만이 두려움을 점점 더할 뿐이었던 것이다.¹⁸⁾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희숙은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유약한 소시민으로 그려진다. 이후 남편 충모가 들어온 뒤에도 두 사내가 무기를 들이대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식사를 마친 강도들은 집 안을 뒤지면서 충모 부부를 잠깐 “연민의 시선으로 일별”하지만, 나일론 빨랫줄로 부부의 양손을 등 뒤로 모아 결박하고 수건으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 부부는 재난적인 현실 앞에서 더욱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이후 강도들은 부부에게 약탈한 현금으로 술과 안주와 화투를 사와 노름을 시작하고, 밤이 이슬해지면서 ‘네모턱’이 “미인이나 차지해야겠군.”이라면서 희숙의 겨드

18) 조혜일, 「무쇠탈 1」(1973), 『무쇠탈』, 숲, 1991, 16면.

량을 획 잡아 일으키자, 총모의 눈에 “세 사내의 얼굴이 순간 하나같이 거무튀튀한 무쇠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신혼부부의 살림집을 무단 침입한 뒤 익명의 사내 3인이 벌이는 ‘강도 행각과 노름판, 회숙의 성폭행 시도’ 등은 성실한 소시민들에게 다친 재앙을 형상화함으로써 ‘인면수심의 무쇠탈’을 뒤집어 쓴 ‘폭력의 시대’를 풍자한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의 폭압이 자행되던 대표적인 국가 폭력의 시대에 해당한다. 작품에서처럼 평범한 신혼부부 집에 들이닥친 강도의 무단 침입과 재앙적 현실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폭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2) 1970년대 ‘전도(顛倒)된 성적 욕망’의 형상화

「무쇠탈 1」이 ‘단란한 신혼부부’에게 다친 ‘잔혹한 폭력과 끔찍한 피해’를 통해 유신체제의 폭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무쇠탈 2」(1977)는 폭력적 가해자와 선의의 피해자의 양상을 뒤바꾸어 욕망의 전도(顛倒)를 통해 리비도가 과잉된 대도시의 성적 타락을 추적한다. 강도 변장호는 “참으로 야릇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벌여온 강도 행각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불식”시키게 된다. 한강변 맨션아파트에 상수도 검침원을 사칭하고 침입한 장호는 방금 목욕을 마친 듯한 젊은 부인 앞에서 칼을 꺼내 들고 자신이 ‘강도’라고 위협하지만,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젖어 있던 부인이 맥주와 안주를 전해주고 강도에 대해 자신을 뒤따라온 ‘치한’ 정도로 오해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말썽한 회사원 차림의 30대 남자인 남편이 귀가했지만, 양주까지 가져와서 함께 마시면서 ‘우리들의 강도선생을 위해서, 살살 털어가시기를 빌면서, 두 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등의 농담 같은 건배사를 나누며 “마치 오랜 지기들끼리의 우정어린 술자리처럼” 술을 마신다. 더구나 주

인 사내는 강도가 “주인이 보는 데서 빼앗는 게 본업”이라면서 자신 앞에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한다. 재차 권유해도 강호가 망설이자, “강도란 얼굴에 무쇠껍질을 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으면서 다시 부추긴다.

변장호는 이제 거의 자기의 지각 작용을 신용할 수가 없었다. 도무지 사태가 어떻게 돼먹은 건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다만 젊은 여주인의 자극적인 몸짓에 이끌려 마침내 그녀와 한 몸이 되면서, 자기가 문득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도질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 뿐이었다.

주인 사내가 말했다.

“야, 멋지군, 정말 멋져. 선생, 앞으로 우리 집 좀 자주 방문해 주지 않겠소?”¹⁹⁾

인용문에서처럼 강도는 젊은 여주인의 자극적인 몸짓에 이끌리면서 “자기가 문득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도질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게 되고, 주인 사내가 “선생, 앞으로 우리 집 좀 자주 방문해 주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나쁜 강도와 착한 피해자’라는 전형적인 ‘선악과 피해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육욕에 들뜬 피해자의 적극성’과 ‘육체적으로 겁탈되는 듯한 강도의 소극성’을 보여주며 타락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산업화 시대 도시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바깥에서 바라보면 유신 체제의 억압적 현실이 소외된 도시인들에게 성적 과잉과 함께 성폭력을 내면화한 전도된 욕망을 강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²⁰⁾

19) 조해일, 「무쇠탈2」, 『문학과지성』, 1977년 여름, 521면.

20) 김현주에 따르면, 조해일 등의 ‘1970년대 대중소설’에는 상대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시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판 정신이 강렬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장발 단속 등 개성의 자유가 정치권력에 의해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규범의 정당성이나 정권 획득의

3)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의 편재적 폭력 비판

1970년대에 쓰여진 「무쇠탈 1」과 「무쇠탈 2」가 유신체제의 폭력적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무단침입한 강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무쇠탈 3」(1985)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편재적 폭력을 풍자한 작품이다. 「무쇠탈 3」은 ‘무쇠탈’이 벌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자비한 살인’이 작품 말미에 ‘출판인=무쇠탈’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분열적 자아의 폭력 충돌’이 만연한 사회가 1980년대 한국 사회임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는 무쇠탈을 쓰고 무쇠 몽둥이를 휘두르는 정체 불명의 괴한이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해코지한다는 소문에 시민들이 “전율과 공포의 감정”에 빠져드는 모습이 그려진다. ‘무쇠탈’과 ‘무쇠 몽둥이’가 시민들에게 “일종의 원시적인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목격자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젊은 아가씨, 태권도 사범 셋, 야구선수들, 경찰관 몇 명’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 사실이 전해진다.

이후 작품 말미에 출판사 대표인 Z의 귀갓길에 마주하게 된 ‘무쇠탈’은 지금 이 사회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도덕적 마비”를 넘어 차라리 “무도덕 상태”라고 말하면서, “큰 뜻을 펴는 데는 그만한 희생쯤 따르는 법”이라면서 ‘폭력의 사상’을 펼치고, 자신에게는 “목적이 수단이고 수단이 목적”이라면서 사람들을 죽이러 이 나라에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

괴한은 지팡이처럼 짙고 있던 무쇠 몽둥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천천히 얼굴에 쓴 탈을 벗어올렸다. 순간 의심쩍게도 그 동작이 어딘가 낯익다고 Z는 생각했다.

타당성 논의가 성 담론으로 은유적으로 표출되던 시기이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망이 거부당하자 성적인 자유분방함이 분출된 양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81~205면.) 유신 체제의 폭력적 억압이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타인과의 유대 관계로부터 소외된 도시인들에게 ‘개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 일탈을 조장하는 기제로 작동한 셈이다.

“자, 눈을 비비고 잘 보아라. 내가 누구냐?”

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맛보았다. 뱀 한 마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미끄러졌다. 그는 눈을 비볐다. 그리고 탈을 벗어올린 피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뱀 한 마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미끄러졌다. 그곳엔 매우 낮익은 얼굴이, 비루하고 겁 많은 얼굴이, 의심 많고 잔피 많은 얼굴이, 그가 매일 거울에서 보는 그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파리하게 탈바가지처럼 떠 있었다. 그는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다.

“똑똑히 봤느냐? 똑똑히 봤으면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피한이 말했다.²¹⁾

인용문에서처럼 피한이 스은 눈을 뜨게 해주겠다면서 무쇠몽둥이를 내려놓고 탈을 벗자, 그곳에는 “매우 낮익은 얼굴”이자 “비루하고 겁많은 얼굴”, “의심 많고 잔피 많은 얼굴”인 “그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파리하게 탈바가지처럼 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스은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면서 “똑똑히 봤느냐? 똑똑히 봤으면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피한의 말을 듣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의 「무쇠탈」이 박정희 유신체제가 야기한 폭력과 욕망의 타락상을 직접적이거나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면, 1980년대의 「무쇠탈」은 ‘무쇠탈’과 ‘무쇠몽둥이’를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소시민의 폭력적 응징을 염원하는 타나토스적 충동을 보여준다.

「무쇠탈」 연작은 왜곡된 폭력이 만연한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다. 폭력과 살인, 공포와 불안, 성욕과 충동 등이 교차하면서 산업화 시대 이래로 진행된 정치권력의 폭력적 지배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조해일은 현실적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 폭력의 무자비성과 주객이

21) 조해일, 「무쇠탈 3」(1985), 『무쇠탈』, 숲, 1991, 278면.

전도된 욕망, 폭력이 낳는 살인 등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폭력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억압적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현은 당대 사회의 폭력적 진실을 외화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독자와 공유하는 비유적 기폭제가 된다.

3. ‘임꺽정의 에피소드 덧붙이기’를 통한 1970~80년대 정치 현실 풍자 - 「임꺽정」 연작의 경우

총 7편까지 작성된 「임꺽정」 연작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1920~30년대 민중적 역사소설의 시원을 열면서 조선 최고의 역사소설로 평가받는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 대한 오마주로서 ‘이야기 덧붙이기’의 힘을 보여준다. 선배 작가의 대작에 대한 헌사로서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덧붙여 조선 왕조의 모순을 혁파하려는 민중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임꺽정’을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성을 비판하는 저항적 아이콘으로 삼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소설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가져온다.²²⁾

22) 작가 스스로도 2000년 개정판에 이르러 금서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벽초의 대작을 읽은 감명에서 「임꺽정 1」이 쓰여졌으며, 1970년대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야만적인 우리 정치사의 고비들마다 내 정치적 감수성에 가해져온 참기 힘든 고문들에 대응하는 궁여지책도 겸하여” 임꺽정 연작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조해일, 「작가의 말」, 『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2000년 개정판, 153면.) 작가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 유신체제의 폭력 통치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에 대한 저항적 상상력이 임꺽정 연작을 낳은 셈이다.

1)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지식인의 허위의식' 비판, 민중의 대동세상 희원(希願)

1970년대에 발표된 「임걱정 1~4」 연작은 유신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알레고리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먼저 「임걱정 1」(1973)은 7편에 달하는 ‘임걱정 연작’의 일종의 프롤로그로서, 지식인이 지닌 ‘뜻의 결핍’을 자각한 임걱정이 행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가 임걱정의 ‘인품과 의협의 편린’을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일화 한 가지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으며 “기왕의 임걱정 이야기들”에 보태려는 목적을 밝히면서 작품이 시작된다. 걱정의 나이 39세 때 조선 명종 시대에 학식 높은 선비 허순이 숨어 산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찾아간 허순의 방안에는 선비 4명이 자리하는데, 걱정이 “임걱정이우”라고 인사를 하자 양반 중 하나가 예의가 아니라면서 ‘반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걱정은 “성품이 직접적이고 속을 잘 감출 줄 모르는 사내”인 허순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전한다.

그러자 허순이 전라도 안넷골에서 기아에 허덕이던 산모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찐 암탉 한 마리로 착각하고 잡아먹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준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끔찍한 생각과 측은한 마음, 돌봐주지 못한 죄책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뒤엉켜 대장장이의 집에 불을 지른 이야기까지 전하자, 걱정은 “아낙에 대한 측은한 정과 대장간 주인의 인정 머리 없음에 대한 노여움”과 함께 지방 관속들과 “조정에 들어앉은 자들의 가렴주구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후끈거려진다. 그럼에도 허순이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세월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하자, 걱정은 무슨 세월을 기다리느냐고 반박한다.

“나두 제갈량은 못 되우. 이 난마(亂麻) 같은 판국을 바로잡을 아무 방책이 내게두 없소. 생각할수록 어렵기만 하구 그야말로 머리 속이 난마

처럼 얽히기만 하우. 간혹 모자란 지혜, 모자란 힘으로나마 무슨 방책을 세워보려구두 했소만 그렇게 세운 방책이 과연 옳을 것이 될 겐지 어떤 지두 잘 알 수가 없었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소. 그대 무얼 좀 알게 될 때까지는 세월을 기다리기루 하구 있소. 그저 이렇게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 객담이나 하면서 말이우. 정말 나는 아직 그러한 일개 서생에 불과하우. 그렇지만 았던들 벌써 한번 내 발루 임 장살 찾아갔을 게요.”
 “식은 소리 그만 하우. 난 가우.”

걱정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일찍이 힘의 결핍을 느낀 적은 없었으나 이때처럼 뜻의 결핍을 극심하게 느껴본 적도 없었다. 무언지 불덩어리처럼 속이 뜨겁기만 하고 허순이 자기가 찾으려던 사람이 아님만 확실한 채 걱정은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²³⁾

인용문에서처럼 난마처럼 얽혀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저 객담이나 하면서 “세월을 기다리기”로 했다는 허순의 말을 들으며 걱정은 깊은 실망감에 젖게 된다. 이후 걱정은 ‘힘의 결핍’이 아니라 “뜻의 결핍”을 극심하게 느끼면서, 허순이 자기가 찾으려던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임걱정 1」은 지식인 허순이 보여주는 우유부단한 태도와 걱정의 저항적 활동을 대비시킴으로써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을 돌파하려는 ‘신념에 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신체제의 독재 권력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임걱정 1」이 『근기야록』이라는 허구적 기록의 작성자인 선비 허순과의 대면 속에 “뜻의 결핍”을 확인하며 지식인에 대한 회의와 함께 민중적 저항의 필요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임걱정 2」(1974)는 ‘임걱정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폭력적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민중 권력 쟁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작품은 걱정이 죽은 아버의 관짝을 옆구리에 끼고 산으로 문으러 가는 부분이 백

23) 조해일, 「임걱정1」, 『임걱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 23-24면.

초의 소설에서 잊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다. 그 부분이 ‘걱정의 힘과 사람됨’을 헤아릴 수 있는 적절한 대목이라면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살아남은 생명의 슬픔과 분노와 사랑이 감동적으로 집약 묘사된 예”라고 덧붙인다. 작가는 죽음이 “생명 가진 것에 가해지는 최악의 폭력”이며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사람 목숨의 존귀함”과 “사랑을 확인하는 최대의 표현”이라면서 ‘임걱정의 최후’를 기록한다.

작품 속 핵심 내용은 임걱정이 27대의 화살을 몸에 받고 체포된 뒤 토포사 남치근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남치근이 걱정에게 ‘기운을 왜 바르게 쓰려 하지 않느냐고 묻자 걱정은 ‘기운을 바르게 쓰다가 죽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자신이 ‘옳은 인명’을 살상한 적이 없고 ‘바른 재물’을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치근이 ‘임금이 하늘’이라면서 관군에 저항한 것을 지적하자, 걱정은 ‘임금이 귀신이야’면서 조롱한다. 그때 남치근이 ‘무식한 놈’이자 ‘큰 역적놈’이라고 덧붙이며 ‘반상의 구별’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자, 걱정은 ‘국법이 너희 놈들 좋자고 꾸며놓은 꿈꾸이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다시 남치근이 ‘불학무식한 놈, 배운 건 없는 놈, 아주 시꺼먼 역적놈’이라고 지적하자, 걱정은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알고 있지만 양반들을 벌주지 못하고 죽는 게 천추의 한’이라고 반박한다. 결국 남치근이 걱정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작가는 “기왕에 나온 기록이나 가설들에는 임걱정이 왕권에는 전혀 도전할 의사나 도전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순의 『근기야록』은 그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선이 하늘 같은 임금을 섬기는 ‘양반 사대부의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백성의 나라’임을 피력한다. 이렇듯 「임걱정 1~2」는 지배 권력의 폭력성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풍자하면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2) ‘진짜 임꺽정’과 ‘가짜 임꺽정’의 대결 구도를 통한 ‘무력(武力)의 올바른 사용’ 추구

「임꺽정 1~2」가 유신체제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 속에 ‘임꺽정의 최후」를 상상하며 왕권에 저항하는 꺽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임꺽정 3~4」는 유신정권의 폭력적 지배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양면적인 민중의 속성을 주목함으로써 1970년대 독재 시대를 비판하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먼저 「임꺽정 3」(1975)은 임꺽정이 자신과 엇비슷한 괴력의 소유자인 ‘피가’라는 인물을 상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꺽정이 자신과 힘으로 짝이 될 만한 기운 있는 자가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이랑’을 호위하는 노복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후, 피가를 만나 힘을 겨루자 두 마리의 황소가 서로 뺨을 맞대고 엉켜 돌아가는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 생전 처음 만나보는 강적에게 ‘왜 이랑 같은 간신배의 종 노릇을 하냐고 꺽정이 묻자 피가는 ‘종놈이 간신과 충신을 가리느냐고 되묻는다. 다시 꺽정이 세상의 법도라는 것이 하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양반 벼슬아치들이 잇속을 차리려고 만든 것이라며 설득하지만, 피가는 이대감 댁 슬하에 와서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좋다고 말한다. 더구나 ‘헐벗고 굶주린 시골 백성’들 역시 저희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며 어미와 아버지가 천대받으며 평생 고생하다 죽은 것 역시 팔자소관일 뿐이라며 체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두 사내는 다시 벌떡 일어서 맞붙었다. 그리고 다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엉켜 싸웠다. 둘의 기운은 어느 쪽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으나 결국 일신을 버리고 싸우는 자에게 일신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마지막에는 견디지 못하였다. 꺽정이 피가의 두 무릎을 망가뜨려놓았던 것이다.

꺽정은 도둑이 된 뒤로 이때처럼 슬퍼본 적이 없었다.²⁴⁾

24) 조해일, 「임꺽정3」, 『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 61면.

걱정은 피가에게 “못난 놈”이자 “창자까지 썩은 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다시 엉겨붙어 땅거미가 질 때까지 싸워 이긴다. 인용문에서처럼 “일신을 버리고 싸우는 자”인 임걱정에게 “일신을 위해서 싸우는 자”인 피가가 패배한 것이다. 결국 양반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걱정이 개인적인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피가의 두 무릎을 망가뜨려 놓고 슬피하는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양반권력을 따르는 ‘피가’의 순응주의적 태도를 통해 지배 권력의 질서를 내면화한 어리석은 민중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무지몽매한 민중을 알레고리적으로 비판하는 「임걱정 3」이 힘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피가와 걱정의 싸움을 통해 ‘뜻의 힘’으로 피가를 제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동지적 존재로서의 민중을 주목하는 「임걱정 4」(1977)는 힘은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가짜 임걱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전라도 구례에 걱정의 이름을 파는 도적이 나타나는데 백성의 재물은 손대지 않고 관가의 재물만 털어간다면 신출귀몰한 솜씨라고 정 탐꾼이 전해온다. 걱정이 가짜 임걱정을 만나 봉도로 겨루기를 하다가 사내가 무릎을 꿇고 성님으로 모시겠다고 전하면서 싸움이 끝난다. 그때 가짜 임걱정이 걱정에게 일생을 ‘그냥 도둑’으로 마칠 생각이냐고 묻자, 걱정이 그냥 ‘평범한 도둑’으로 일생을 마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대답하면서 둘은 의형제를 맺게 된다. 걱정은 그에게 질마재 마루에서 계속 임걱정 행세를 하라고 당부하며, 곤궁한 형편이 생기면 도움을 청하라고 전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임걱정 3~4」에서는 ‘힘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가짜’(=피가)보다 ‘힘이 부족하더라도 뜻이 유사한 가짜’(=구례 임걱정)가 임걱정의 대의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존재임이 드러난다. 작가는 유신체제가 낳은 권력의 독점적 구조를 전복하고 현실 제도의 모순을 혁파하기 위해 정의로운 신념을 지닌 동지와의 연대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에 간사로 참여

하여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문인 선언에 가담한 작가의 이력은 동시대 문인들의 저항적 연대와 실천의 양상을 보여준다.²⁵⁾

3) 1980년대 기회주의적 지식인 비판과 정의로운 신념의 외화

1970년대 유신 체제의 억압적 구도를 비판하는 텍스트가 「임격정 1~4」라면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성을 비판하는 텍스트가 「임격정 5~7」이다. 먼저 「임격정 5」(1980)는 한때 임격정 일당과 뜻을 같이 했던 책사였다가 배신자가 된 서림이의 후일담을 전한다. 임격정 무리를 토벌하고 포살한 공으로 서림은 남소문 안에 널찍한 집 한 채를 장만하여 노비도 데리고 첩도 들썩이나 거느리며 양반 벼슬아치의 살림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저녁에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와 '사람 썩는 내가 난다면서 서림에게 '칼에 더러운 피를 묻히기 싫으니 스스로 자인하라'고 전하며, 자인하지 않으면 부득이 구례의 임두령이 와서 목을 베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이튿날 서림의 집에서 낭자한 곡성이 들리는데, 서림이 자인을 한 모양이라고 소문이 난 뒤 나흘째 되는 날 서림의 집에서 조출하게 꾸민 상여 하나가 나간다. 허순의 『근기야록』에는 이후 서림이 자신의 집에 숨어서 천수를 누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다른 버전으로 어떤 사내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더리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작품이 마

25) 작가 조해일이 간사로 참여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1974년 11월 18일 고은, 신경림, 백낙청, 염무웅, 조태일, 이문구, 황석영, 박태순 등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학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결성된다. 유신체제 성립 이후 문학계의 반유신 운동의 본격화를 알린 것은 1973년 12월 24일 백기완이 주도하던 백범사상연구소 주최의 '민족문학의 밤'이었다. 이로부터 '100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개시되었고 이듬해인 1974년 1월 7일에는 '문인 61인 개헌지지 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성명서의 발표로 61인 전원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소위 '문인 간첩단사건'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은이 총책임을 맡고 이문구, 염무웅, 박태순 등이 주도해 1974년 11월 18일 '문학인 101인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무리된다.

「임격정 5」가 배신자 서림이의 마지막을 통해 임격정의 후일담을 기록하고 있다면, 「임격정 6」(1981)에서는 인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걱정은 경상도 상주의 김청생이라는 비렁뱅이 서생이 ‘조선 땅이 좋은 세상’이라며 반어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그 선비로부터 조정을 쫓아낸 자들이 법제와 물자와 함께 ‘조련된 군사’를 쥐고 있으므로 저들을 꺾으려면 백성들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선비는 백성을 모두 모을 수가 없고 인명은 재천이므로, 결과적으로 불의를 꺾기 위해 인명이 희생된다면 차라리 불의가 존재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인다. 걱정이 불의를 참으면 불의가 인명을 더 해친다고 하자 선비는 무작정 인명을 해친다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걱정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른 이들의 목숨을 건지려는 뜻을 전하며, 인명을 귀히 여기라는 선비의 말을 마음 속에 잘 담아두겠다면서, ‘위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인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수하들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임격정 6」이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직접적 행동은 거부하는 ‘인명재천을 따르는 선비’의 한계를 주목하고 있다면, 「임격정 7」(1986)에서는 걱정이 언문을 배운 이야기를 전한다. 기생인 여옥이 걱정에게 진서라 일컫는 한문과 달리 깨치기가 아주 쉬운 글이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깨쳐 널리 쓰게 하기 위한 글”을 걱정이 배워 산채의 수하에게 가르치면 어떻겠느냐고 권한다. 글이란 사람을 속이는 요물단지라고 생각해온 걱정이에게 여옥이 종이 위에 스물여덟 글자를 적어 초성, 중성, 종성을 알려주고, ‘강’과 ‘산’을 말하고 적으며, ‘강산’의 의미와 표기를 가르친다. 이후 허순의 『근기야록』에 읽기와 쓰기를 배운 걱정이 직접 ‘바른 생각과 말과 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작한 글이 실려 있음이 전해진다.

알고 보니 글이란 것이 본디 말을 적는 것, 바른 말을 적으면 바른 글

이 되고 그른 말을 적으면 그른 글이 된다. 또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 바른 말은 바른 생각에서 나오고 그른 말은 그른 생각에서 나올 터이다. 그러니 세상에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글이 있고 그른 생각, 그른 말, 그른 글이 있을 터이다. 한데 이치는 반드시 그렇지만 앓은 듯, 세상에는 바른 생각을 지니고서도 그것을 숨겨 그른 말, 그른 글을 짓는 이가 있고 그른 생각을 지니고서도 그것을 꾸며 바른 말, 바른 글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가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대개 이를 거짓 말, 거짓 글이라 하겠으나 이 뒤뜰은 어디서 비롯할까. 사람이 본디 영악한 데서 비롯할까. 세상의 바르지 못함에서 비롯할까. 아니면 혹 말이나 글의 온전치 못함에서 비롯할까. 다 까닭이 될 수 있겠으나 생각건대 이는 오로지 그 사는 일의 바르지 못함에서 비롯할 터이다. 그러니 정녕 바른 글이란 바로 사는 데에서 비롯한다 하겠다. 하면 아, 바른 글을 짓기는 얼마나 힘겨운고. 세상 일 모두가 한 가지 이치로구나.²⁶⁾

인용문에서 보이듯 걱정은 언문일치와 함께 정언(正言), 정행(正行), 정사(正思) 등을 강조하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른 생각을 지녔으면서도 그른 말글을 짓는 이중적인 사람’이나 ‘그른 생각을 지녔으면서도 바른 말글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위선적인 사람’이 존재한다면서, ‘바른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바른 말과 글’의 중요성을 기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걱정의 글에 대해 허순이 “한낱 도둑의 글에 지나지 않으나 그 참됨을 가지고 의론할진대 그 어느 재상의 문장도 이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독후감을 적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바른 말과 바른 글’을 통해 ‘바른 삶과 바른 생각’을 실현하려는 걱정이 지닌 ‘뜻의 진정성’을 높이 산 것이다. 이는 결국 지식인의 이중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언론을 탄압하고 지식인을 회유하여 권력을 유지해온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작가의 시선을 보여준

26) 조해일, 『임격정기』, 『임격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 137-138면.

다.

이렇게 보면 「임격정」 연작 7편은 정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1970~80년대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아사를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²⁷⁾ 그리하여 임금과 사대부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 반상의 차별이 엄연한 신분제 사회에서 기회주의적 지식인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의 기아와 궁핍을 넘어서는 저항적 행동으로 ‘백성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작동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가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폭압 통치를 알레고리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조선 명종조의 의적 임격정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4. 분단 시대의 적대적 공존 넘어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상 - 「통일절 소묘」 연작의 경우

‘통일절 연작’에서 「통일절 소묘」(1971)가 분단 20년 남짓한 시기인 1970년대에 상상한 근미래로서의 ‘통일한반도’에 대한 낭만적 기대 지평의 최대치를 보여준다면, 「통일절 소묘 2」(2017)는 분단 70년 남짓한 시기인 2010년대에 상상한 2030년대 ‘통일한반도’에서의 ‘분단시대 박물관’ 체험기에 해당한다. 46년 만에 새로 쓰여진 연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단시대를 ‘과거의 박제화된 시공간’으로 요약함으로써 20세기적 전쟁과

27) 작가는 특히 “「임격정 3」에서는 당시의 야만적 정권에 봉사했던 지식 집단에 대한 노여움을, 「임격정 5」에서는 저 80년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을 담아보려 했단든지 하는 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조해일, 「작가의 말」, 『임격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2000년 개정판, 154면.) 2000년 개정판에 이르러서이긴 하지만, 1970년대에 유행하던 지식인의 이중적인 포즈에 대한 자기 비판과 더불어 1980년 광주항쟁 당시의 분노와 허탈감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0~80년대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성을 전제로 연작이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21세기적인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희망하는 작품이다.

1) ‘모범적 한반도의 재통일’에 대한 1970년대적 상상

1970년대 초에 발표된 「통일절 소묘」(1971)는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을 남북에서 합의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에 분단된 한반도의 “모범적 재통일에 대한 성공담”을 상상한 이야기에 해당한다. 통일절 3주년 기념일에 한국의 통일이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최고의 도덕적 성취”로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실현”을 찬양하며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내었던 것”으로 자부한다.

먼저 〈서울〉에서는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을 외치며 청계천에서 분신 자살한 전태일 열사를 연상시키는 아동복 제품공장 재봉사인 김순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결혼을 약속한 평양 남자 박민수를 만나러 사리원으로 향하는데, 3년 전 아동복 재단사 모임에서 만난 그는 합성섬유를 없애고 자연섬유의 경제성과 후생성을 높여 “자연과 생명의 높임을 위한 일”들을 발의한다. 작가는 산업화 시대의 역군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착상 속에 남북 노동자의 연대에 착목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는 연제작소 주인이자 민수의 부친인 박태석씨가 모란봉 자유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연 날리기 시합을 제안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연 날리기 시합에서 박태석은 아이들의 연이 떠오를 때, “생명의 율(律)과 함께 “자유”의 이름”을 감지한다. 작가는 기아와 억압, 착취로부터 해방된 생명력의 자유로운 몸짓을 연 날리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박태석의 사위인 정치인 민남식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3년 전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당시 정적이었

던 최길균을 만나 3년 전보다 더 깨끗한 공정선거를 약속한다. 작가는 각종 투표 부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부정 선거를 풍자하기 위해 상상 속에서나마 공명 선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에서는 최길균의 아버지인 최한선 교장이 등장하여,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졸렬하고 무지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적은 수의 사람들’로 조용히 시작된 “자기가 자기로 되자는 운동”이 ‘자랑스러운 평화통일운동’이었음을 전한다.

분단 시대의 역사를 배워서 너희들도 대충은 알 테지만 우리에게 아주 부끄러웠던 시기가 있었다. (중략) 한 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찬 쓰레기통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지. 한때 이때 적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시작된 자랑스러운 운동이 있었다. 그 적은 사람들이 시작한 조용한 운동은 차차 본래부터 어리석지는 않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로 되자는 운동이었어. 게으르고 염치없던 자기에서 본래의 부지런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자기로, 약삭빠르고 가벼웠던 자기에서 본래의 공정하고 체통을 지킬 줄 아는 자기로, 남의 것만 돋보던 자기에서 제것을 바로 볼 줄 아는 자기로, 주먹이나 힘으로만 매사를 다스리던 자기에서 본래의 경우 밝고 매사를 이치에 따라 다스리는 자기로, 옳은 것을 지킬 힘이 없는 자기에서 옳은 것을 지킬 힘을 갖춘 자기로, 돈으로서의 자기에서 사람으로서의 자기로, 걸만 차리려는 사치로운 자기에서 속을 갖추려는 근검한 자기로, 저만 잘 살려던 자기에서 함께 잘 살려는 자기로, 잘못된 편에 서서 편안히 하던 자기에서 본래의 옳은 것을 지키는 괴로움을 택하는 자기로, 숨을 못 쉬던 자기에서 본래의 숨쉬는 자기로, 획일화된 자기에서 본래의 다양한 자기로, 그리고 두 동강이 난 자기에서 본래의 한 덩어리로서의 자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²⁸⁾

28) 조혜일, 「통일절 소묘」(1971), 『무쇠탈』, 숲, 1991, 326-328면.

분단된 한반도에서 “두 동강이 난 자기에서 본래의 한 덩어리로서의 자기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여 3년 전에 통일절이 마련되었으며, “참다운 뜻에서의 자기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전한다. 작가는 ‘본래적 자기를 향한 회복 운동’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운동의 출발이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서 〈신의주〉에서는 ‘동두천 위안부’ 출신의 서애자 할머니의 양아들인 이인호 중위가 신의주 국경수비사령부에 복무 중인 이야기가 그려진다. 전원이 지원병으로 복무하는 ‘통일 한반도’의 군대에서 장교들은 ‘중공’의 “맹목적인 팽창주의”에 종지부가 찍힐 것을 기대하며, 국경 수비병들은 “추한 이민족(異民族)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임무의 첨단에 선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통일절 소묘」는 1970년대적인 한반도의 상황을 전제로 분단 체제의 한계 너머를 상상한다. 그리하여 노동 존중의 경제 공동체, 자유와 생명을 지향하는 평화 공동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 공동체, 근면한 예지와 생명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교육 공동체, 통일 조국의 국토 수호에 자원입대한 자부심을 지닌 국방 공동체 등이 1970년대 초에 작가가 꿈꾸는 ‘통일 공동체 사회’로서의 비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2) ‘박물관행이 되어야 할 분단시대’에 대한 2010년대적 상상

엽편소설(葉片小說)인 「통일절 소묘 2」(2017)는 「통일절 소묘」(1971) 이후 46년 만에 쓰여진 연작이다. 20세기의 「통일절 소묘」가 ‘서울과 평양, 부산과 원산, 신의주’ 등 5곳의 연결된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에 상상 가능한 통일 이후의 낭만적 세계를 형상화한 미래소설에 해당한다면, 21세기에 쓰여진 「통일절 소묘 2」는 연인인 소울과 하울의 시선을 통해 2034년 통일절 12주년을 상상하면서 ‘분단시대의 질곡’을 응시하

며 창작한 작품이다. 을밀대에 자리한 한반도의 ‘분단시대 박물관’ 중 남관을 방문한 두 사람은 1948년 ‘4.3살’에서 분단의 고통을 상징하는 선명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살’부터 1980년대 ‘5.18 민주항쟁살’을 거쳐 2016~17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기록한 ‘촛불 기념살’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분단 시기 동안 남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관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통일절 소묘 2」에서의 시간적 배경은 2034년 5월 9일 12주년 통일절이다. 20대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는 ‘통일 한반도’가 구성되길 바라는 작가적 상상력이 녹아 있는 ‘통일절’ 상상인 셈이다.

‘노동은 로봇이, 인간은 운동을~’이라는, 이젠 낡아버린 구호대로 거리마다 달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자동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열두 번째 맞는 통일절, 공휴일이다. 2034년 5월 9일.

서울에서 고속철로 한 시간 거리인 평양역에 서울과 하울이 도착한 것은 오전 열시쯤. 평양은 화창한 날씨였다. 서울과 하울은 남매가 아니다. 형제도 아니다. 그들이 태어나던 2010년대에 그 이름들이 유행했을 뿐이다. 그들은 연인 사이다. 오늘 을밀대 공원에 있는 ‘분단시대 박물관’에 관람하러 왔다. 서울이 제안했고 하울이 마지못해 동의했다.²⁹⁾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노동은 로봇이, 인간은 운동을~”이라는 구호 아래 연인인 서울과 하울이 도착한 을밀대 공원의 ‘분단시대 박물관’은 두 동의 커다란 3층 벽돌 건물이 마주 보는 형태로 지어져 있다. 역사학도인 서울은 ‘1948년 4.3사건’부터 보고 싶어하는데, 남북 분단의 ‘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제주도 4.3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45년의 ‘해방살’을 지나 ‘4.3살’로 간 서울은 자세히 물건들을 들여다 보지만, 수학도인 하울은 전시실 오른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한 장에

29) 조해일, 「통일절 소묘2」, 김금희 외, 『이해 없이 당분간』, 걷는사람, 2017, 195면.

못 박힌 듯 서 있게 된다. “몇 명의 산발한 사내가 손을 묶이고 눈을 천으로 가린 채 맞은편에 서 있고 이쪽에는 총을 겨눈 경찰관들이 왼발을 앞으로 내민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하울은 “온몸이 싸늘히 식는 느낌”을 맛본다. 생명을 학살하는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사진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미소 군정기를 거쳐 분단 초기에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의한 폭력과 학살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역사를 ‘4.3일의 사진 한 장’이 명명백백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단시대 한반도에서의 원초적 외상이 1948년 4·3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작가가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관’의 마지막 전시실은 ‘촛불 기념실’인데, 그곳에서 소울과 하울은 둘 다 10세 미만이던 2016년 겨울과 2017년 초에 부모 손을 붙잡고 광화문 광장을 걸던 기억을 떠올린다. 한 손에는 “LED 촛불을 쥔 채” 평화롭게 대통령의 하야와 정권 퇴진, 탄핵 가결을 외치며 걸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작가는 분단 체제 하에서 가장 빛나는 평화적 민주주의의 성취를 천만 촛불의 광장이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학은 현실을 통해 현실 너머를 상상하지만, 역으로 상상을 통해 현실을 견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분단 시대 안에 간혀 있던 1971년과 2017년에 각각 ‘통일절’에 대한 상상도를 그려낸 작가의 서사적 의지와 노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학은 억압적 현실 세계를 직시하면서 넘어선다. 제도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해 자유로운 비상을 이야기하는 장르가 문학이기 때문이다. 분단 시대를 넘어서려는 1970년대적 모색이 「통일절 소묘」에 해당하고, 다시 ‘분단 시대 박물관’ 체험을 통해 통일절을 상상하는 2010년대적 모색이 「통일절 소묘 2」로 펼쳐진다. 이미 ‘통일절’에 대한 상상이 현실화되었어야 한다는 ‘낭만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 체제에 간혀 있는 한반도의 한계 상황에 대해 작가는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셈이다.

5. 결론

조해일의 연작소설에서 포착하는 1970~80년대란 군부독재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폭력과 억압으로 정치권력을 유지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반체제 집단으로 몰고 간 사회로 평가된다. 물론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의 폭압 통치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적 지배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폭압의 시대에 대응하던 문학은 체제 저항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비합리주의와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그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해일의 작품을 비롯한 참여적 저항의 1970~80년대 문학은 군부독재세력의 지배담론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며 새로운 대안적 근대를 모색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을 저항의 주체인 민중으로 발견하면서 ‘저항의 서사’를 그려낸 것으로 평가된다.

「무쇠탈」 연작 3편은 왜곡된 폭력과 타락한 충동이 만연한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다. 폭력과 살인, 공포와 불안, 성욕과 충동 등이 교차하면서 산업화 시대 이래로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정권을 비판하며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풍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현은 당대 사회의 폭력적 진실을 외화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독자와 공유하는 비유적 기폭제가 된다.

「임격탈」 연작 7편에서는 임금과 사대부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 반상의 차별이 엄연한 신분제 사회에서 기회주의적 지식인이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의 기아와 궁핍을 넘어서는 저항적 행동으로 ‘백성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민중주의적 상상력을 작동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폭압 통치를 알레고리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조선 명종조의 의적 임격정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절 소묘’ 연작 중 1970년대 「통일절 소묘」가 이상적 유토피아로서

의 한반도의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한 작품이라면, 2010년대 「통일절 소묘 2」에서는 ‘학살과 전쟁과 폭력의 분단시대’를 현재로부터 유리하여 과거로 박제화하려는 작가적 의지가 강조된다. 작가는 ‘통일절 소묘’ 연작을 통해 분단 시대의 극복과 평화 체제의 도래를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 당시 간사로 활동했던 작가는 연작소설을 통해 도시적 일상에서 포착되는 불합리한 폭력과 충동의 문제, 역사소설의 현재적 전용을 통한 작은 이야기 덧붙이기, 분단 극복과 통일 시대의 상상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알레고리를 배면에 깔고 1970~80년대적 저항의 수사를 형상화한다. 조해일의 연작소설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억압과 1980년대 군부독재의 폭압을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폭력적 현실과 이상적 대안을 모색하며 모순에 찬 현실 세계를 밀도 높게 성찰하게 한다. 이미 1970~80년대에도 일상 현실을 압도하는 방법적 환상의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레고리적 역설’의 표정으로 그의 작품이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해일의 문학은 여전히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현재진행형인 우리 문학의 자산인 셈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조해일, 「무쇠탈 1」(1973), 『무쇠탈』, 솔, 1991.
조해일, 「무쇠탈 2」, 『문학과지성』, 1977년 여름.
조해일, 「무쇠탈 3」(1985), 『무쇠탈』, 솔, 1991.
조해일, 「임격정 1~7」, 『임격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개정판 2000)
조해일, 「통일절 소묘」(1971), 『무쇠탈』, 솔, 1991.
조해일, 「통일절 소묘2」, 김금희 외, 『이해 없이 당분간』, 걷는사람, 2017.

2. 참고자료

- 고인환·오택호, 「조해일의 「아메리카」에 나타난 「미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6권, 우리문학회, 2015. 195~228면.
곽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3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147~164면.
권영민, 「연작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출판사, 1983
권영민, 「내용과 수법의 다양성」, 『제3세대 한국문학 16-조해일』, 삼성출판사, 1983, 435~442면.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김병덕, 「폭압적 정치상황과 소설적 응전의 양상-조해일론」, 『비평문학』 제4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9. 30, 73~98면.
김병익, 「수혜국 지식인의 자기인식-조해일의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1972년 가을.
김병익, 「과거의 언어와 미래의 언어」, 『문학과지성』, 1973년 가을.
김병익, 「호모 파베르의 고통」, 『아메리카』, 책세상, 1974(2007), 319~332면.
김원규, 「1970년대 서사담론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조해일의 「왕십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55~95면.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지영, 「도착적 법(法)의 판타지-연애 담론으로 본 조해일의 『겨울여자』」, 『한국학논집』 9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3, 233~272면.
김지윤, 「조해일 소설의 남성성 다시읽기」, 『구보학보』 19집, 구보학회, 2018. 9,

415~457면.

- 김현, 「덧붙이기와 바꾸기-임꺽정 이야기의 변용」, 『임꺽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 책세상, 1986, 139-152면.
-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2, 돌베개, 2009.
- 박수현, 「조해일의 단편소설 연구-작가의식의 변모양상을 포함하여」, 『현대소설연구』 5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7, 145-178면.
-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서영인, 「1970년대의 서울, 현실의 발견과 압축」, 『아메리카』, 책세상, 2007, 333-340면.
- 신철하, 「한 현실주의자의 상상세계」, 『술래야 술래야/아메리카』, 동아출판사, 1995, 596-610면.
- 심미애,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감정구조 연구:1970년대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역사학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 역사』, 서해문집, 2004.
- 오생근, 「개인의식의 극복」, 『문학과지성』, 1974년 여름.
- 오자은, 「『겨울여자』에 나타난 초성장의 서사와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집, 한국현대문학회, 2021. 4, 253-287면.
- 오태호, 「조해일의 「매일 죽는 사람」에 나타난 죽음 모티프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우리어문학회, 2010. 5. 30, 601-628면.
- 이화진, 「조해일 대중소설의 서술전략과 남성주체의 내면의식」, 『반교어문연구』 50권, 반교어문학회, 2018. 12, 247-274면.
- 진형준, 「연애의 풍속도」, 『왕십리』, 솔, 1993, 361-371면.
-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5-41면.
- 홍정선, 「현실로서의 비현실」, 『무쇠탈』, 솔, 1991, 375-387면.
-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엮음, 황종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Allegory Imagination in
Cho Hae-il's series of novels

– focused on the series of [Iron Mask], [Im Gkeokjeong],
and [Unification Day Drawing]

Oh, Tae-ho

This article aims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Cho Hae-il's novel series,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writer in the 1970s. Series novels show how the author supplements his intentions in the form of a series when he fails to complete his expectations and wishes for the world with a single short. In other words, "a novel that combines several independent illustrations to become a larger story," and "segmentation and instrumentality" is a representative feature.

It is believed that Cho Hae-il's series of novels were mainly created in the 1970s and 80s, revealing the irrationality and inhumanity caused by the system's violence and focusing on overcoming it. The third series of [Iron Mask] satirizes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nd 1980s, when distorted violence and corrupt desires were prevalent. In the seventh series of [Im Gkeokjeong], a story that operates the popularist imagination devoted to the "people's country" by resistance actions beyond the hunger and poverty of the oppressed people unfolds, and alligorously satirizes the tyranny of the dictatorship in the 1970s and 1980s. The second series of [Unification Day Drawing] emphasizes the peaceful landscap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n ideal utopia, as well as the writer's willingness to box the "Division Age of Genocide, War and

Violence" into the past by favoring it from the present.

Through a series of novels, the author goes through the problems of unreasonable violence and sexual desire captured in urban daily life, adding a small story through the present diversion of historical novels, overcoming division and imagining the era of unification, laying political allegories on the back and embodying the rhetoric of resistance in the 1970s and 1980s. Cho Hae-il's series of novels have crossed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virtuality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seeking violent reality and ideal alternatives, and allowing him to introspect the contradictory real world.

Key words: Cho Hae-il, series of novels, [Iron Mask], [Im Gkeokjeong], [Unification Day Drawing], Allegory imagination, Violence and resistance, oppression and freedom, historical novels, future novels

투 고 일 : 2024년 5월 25일

심 사 일 :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4년 6월 25일